

가정예배 · 구역예배

6

충현의 만나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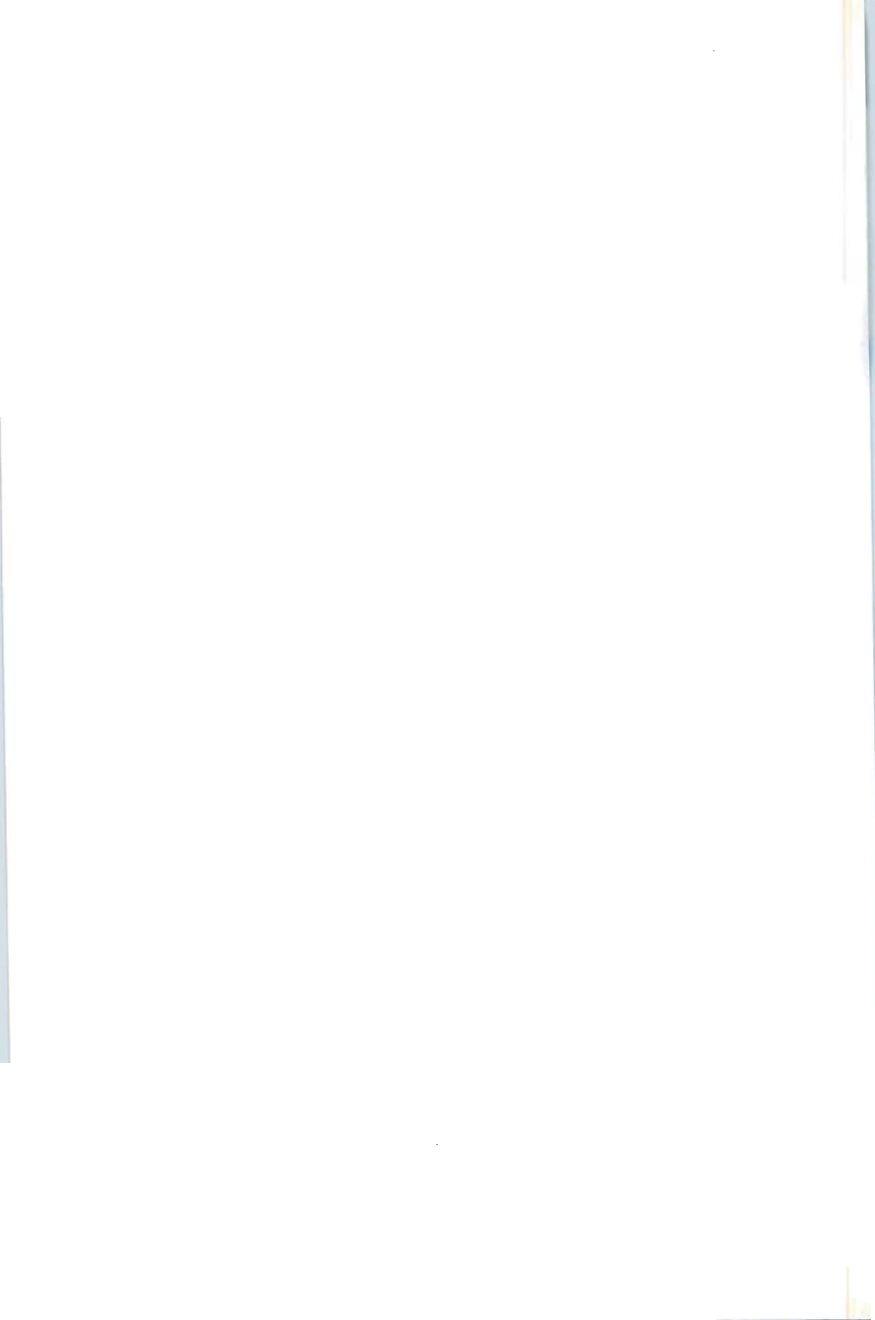
가정예배 다니엘 · 호세아

요한삼서 · 유다서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6

2010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다니엘 · 호세아

요한삼서 · 유다서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6

2010
June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다니엘 3장	2 다니엘 4장
6 다니엘 8장	7 다니엘 9장	8 다니엘 10장	9 다니엘 11장
13 호세아 3장	14 호세아 4장	15 호세아 5장	16 호세아 6장
20 요한계시록 1장	21 요한계시록 2장	22 요한계시록 3장	23 요한계시록 4장
27 요한계시록 8장	28 요한계시록 9장	29 요한계시록 10장	30 요한계시록 11장

July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 주요일정

6월 25일

제2차 청지기훈련

6월 27일

제3차 학습세례식

나의 주요일정

3 다니엘 5장

4 다니엘 6장

5 다니엘 7장

10 다니엘 12장

11 호세아 1장

12 호세아 2장

17 호세아 7장

18 요한삼서 1장

19 유다서 1장

24 요한계시록 5장

25 요한계시록 6장

26 요한계시록 7장

- ①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 6:13)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③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④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⑤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⑥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시설, 함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⑩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선순위,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위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혹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아십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일, 가족,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함이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할, 참으로 슬프고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존재로 변화될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활에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1~32)

2010년 6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성경묵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극렬히 타는 풀무

다니엘 3장 · 찬송가 357장

다니엘의 꿈 해몽을 전해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2:47). 그렇지만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금 신상을 자신의 힘과 권세를 드높이고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경건한 유다 백성에게 크나큰 신앙의 도전이요 위기였습니다. 실로 그들은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로서, 금 신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을 두고 생사가 달린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6, 11절).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위기는 다가왔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을 향하여 느부갓네살왕은 징벌을 유보하면서까지 끈질긴 회유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16절)라는 매우 단호한 말로써 분명한 거부의를 밝힙니다. 그들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구원해 내실 것을 믿었습니다(17절). 그러기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죽음의 불길을 의연히 맞이하였습니다(18절). 우리 또한 어떤 환란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죽든지 살든지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8)

기도제목 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따르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실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느부갓네살 왕의 꿈

다니엘 4장 · 찬송가 21장

2 수요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에게 반포한 조서로, 왕이 험악한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이후에 주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고백의 형식으로 기록한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 때는 태평과 안락의 때였으며, 왕은 이전보다 더욱 교만해졌습니다(3장). 자신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자만한 때에, 주님은 큰 나무의 꿈(10~17절)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꺾으셨지만(13~14, 23~25절), 뿌리채 완전히 뽑아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15, 26절). 그 뿌리를 남겨두사,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절대주권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 위에 지극히 높은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으며(1~3절), 마침내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34~37절). 최고의 권력자인 그가 주님의 절대주권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35절). 실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만 '아멘' 하며 찬송해야 합니다(고후 1:19~20).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단 4:3)

기도제목 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 5장 · 찬송가 135장

벨사살은 매우 방탕하고 우상 숭배에 심취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할 당시 빼앗아왔던(단 1:1~2) 각종 그릇들을 가지고 방탕한 향연에 사용함으로써, 주님의 거룩을 심히 모독하고 그분의 영광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육체적 방탕에 깊이 빠져 있던 벨사살은 성전의 기물로 연회를 즐기며 오만방자했습니다(1~4절).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쾌락의 술잔으로 사용함으로써 당신을 심히 모독한 벨사살의 행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바벨론 궁중의 분벽(국가의 기념할 만한 사건이나 혹은 왕의 치적 등을 기록해 둔 벽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에 사람의 손가락을 나타내서 어 방탕한 향연에 젖어 있던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5절).

주님께서 제시하셨던 심판의 메시지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25절). 이 말은 ‘세어 보고 세어 보아 달아 보아 나눈다’는 뜻이었습니다(26~28절).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좇아, 나라와 제국의 흥망 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권력과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의뢰하고 좇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님만을 의뢰하고 십자가만 좇는 길이 참된 삶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단 5:21)

기도제목 ①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다니엘은 포로 된 백성으로, 당시 그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이같은 탁월한 능력과 총명으로 인해 다니엘은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총리와 방백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1~4절). 대적들은 다니엘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허물과 그릇됨을 찾을 수 없었던 고로, 마침내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5절).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모한 다음에, 다리오 왕의 인간적인 허영심과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이용하여 한 금령을 제정토록 했습니다. 그것은 향후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 외의 그 어떤 대상에게도 일절 기도하거나 간구함으로써 그것을 섬길 수 없다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법령을 교묘하게 위장하여,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도장이 찍힌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도록 하였습니다(7~9절). 이때에 대적들은 '승리했다'고 장담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자 굴 속으로 떨어지든지 그야말로 신앙의 위기로 역경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오직 주님만을 의뢰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반포된 경위를 알고도 예전처럼 여호와와의 성전이 있던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10절). 그는 역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여호와 신앙' 때문에 사자굴을 선택했습니다. 정녕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 6:11)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환상 중에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사자 같았고(4절),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았으며(5절),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았습니다(6절).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어디에 비할 데 없을 만큼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게 생긴 것이었습니다(7절). 환상 속에 나타난 네 짐승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될 강력한 제국들(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제국 등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실한 교회를 박해할 엄청난 세력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완성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15~28절).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던 대 제국들이 지금은 역사의 뒤편으로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세운 어느 나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곧 모두 사라질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의 보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스스로 있는 자, 출 3:14)가 좌정해 계시는데, 그분은 세상 모든 나라를 파하신 후에 당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인자 같은 이' (메시아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자기에게 속한바 모든 성도(신부된 교회)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사모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나라는 바로 이 '주님 나라'입니다(계 5장). 정녕 주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할 것없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롬 11:36).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 7:14)

기도제목 ① 결코 소멸되지 아니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소서. ② 핍박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다니엘이 전해 받은 이상은 매우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활발하던 '숫양'이 갑작스럽게 '숫염소'에게 패배당하고, 그 '숫염소'도 결국 뿔이 꺾이고 마는 멸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1~8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권력의 세력일지라도 결코 그 권력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만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인생은 결코 그 생명이 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대주재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약 4:6).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벧전 5:5).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입니다(17절). 세상 종말의 때에 활동할 적그리스도는 참으로 가혹하게 그 시대의 참 성도(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는 그 때에 참 신앙을 가진 많은 성도들은 순교할 터이고, 교회는 환란 중에서 고통당할 것입니다(계 13:1~10). 하지만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시(마 24:21~22), 메시아 예수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로부터 심판주의 권세를 위임받은 재림의 예수는 최후 심판을 통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영영한 불못에 던질 것이고(계 19:20), 성도와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계 21:1~4).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같은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단 8:20)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포로생활 중에 있던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의 포로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확인하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3절). '우리가 범죄하였고' (5,7,8,11,15절),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6,10절), '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13절)라고 철저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서도 다니엘은 민족이 당한 70년 포로생활의 고난에 대해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의 공의' 라고 인정합니다(7절). 다니엘은 자신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쩔수 없는 죄인임을 거듭거듭 고백합니다(14~15절). 이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사 6:5),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곧 주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참된 기도는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17~19절). 다니엘은 '주를 위하여' (17절), '주의 이름으로' (18절), '주 자신을 위하여' (19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19절).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시 50:15).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단 9:9)

기도제목 ①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다니엘은 고국 땅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비통한 소식 때문에 모든 낙을 끊고 간절히 세 이레(3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2~3절). 주님께서는 3주 동안, 영혼을 괴롭게 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조용히 지켜 보고 계셨습니다(12절). 그리고 다니엘에게 은혜로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뇌하며 간구하는 다니엘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의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성자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위엄차고 영화로운 그리스도 앞에서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빠져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에게 힘을 더하시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5~1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산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마 1:21). 이처럼 그리스도는 낙심한 영혼, 절망한 죄인을 찾아 오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구원자요, 중보자가 됩니다. 죄인 된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오시고 위로하실 때에만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새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단 10:11)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 부분(2~35절, 주전 150년간의 역사)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었다면, 뒷부분(36~45절, 역사의 종말)은 신약의 마지막에 관하여 다룹니다. 그러나 각각의 종결의 부분은 주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결국 앞 부분은 뒷 부분인 역사의 종말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반부의 사건은 후반부의 사건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역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사건이 상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된 사건들이 국가간의 동맹, 배반, 전쟁 같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뜻대로 성취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또한 주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 권세자들로 인해 믿는 자들이 큰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경건한 자를 박해하는 자가 마치 큰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임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멸망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주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는 성도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단 11:45)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히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충청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 납골시설 · 함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제까지의 계시에 대한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적 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난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그 구체적인 시기에 관한 물음과 답변을 통해 주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 줍니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환난은 역사 이래 볼 수 없었던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미가엘 천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은 11장에서도 예언 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큰 환난을 겪고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고난 당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이는 종말의 때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마지막 때 성도가 받는 환난은 참으로 심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모든 인간의 운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2절).

마지막 때에는 이미 죽어 땅에 묻혀 있던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지만, 반면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의 멸망을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성도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믿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단 12: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마지막 때에 수치와 수욕을 당치 않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약 성경의 열 두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인 호세아서는 주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에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이고(1~3장),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와 징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며(4~10장),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한 회복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11~14장).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은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부정했던 그녀는 자녀를 낳고도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정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그분의 신실하심과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주님의 일반적인 계획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배반하는 부정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로 인한 호세아의 아픔과 고뇌를 통해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멜과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호 1:5)

기도제목 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정의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금요찬양집회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적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2절). 말씀 가운데 ‘논쟁하라’는 말씀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고멜이 더 이상 아내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주님을 떠남으로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멜이 송사의 대상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음란한 영적인 간음이 그들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까? 바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로 탐심을 품게 되면, 주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탐심을 버릴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과 그에 따른 징벌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14~23절). 죄악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약속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주님께서 이것을 직접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데 사용되었듯, 주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구원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 앞에 회개할 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총을 덧입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호 2:21)

기도제목 ① 자신의 죄를 바라보아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호세아 3장은 매우 짧게 구성되어 있으며 구약의 계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타락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노예의 신세로 전락한 아내를 대가를 치르고 찾아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그 값을 치르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은 무지와 탐심으로 인해 주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좇아 결국 비참한 처지가 된 이스라엘의 고통스런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좇아갔던 아내를 되찾아 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부정한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죄는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 없이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보혈의 은총을 믿으며 우리의 초점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어 구원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호 3:5)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스라엘의 죄는 근본적으로 여호와와의 말씀에 대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은 통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주님의 백성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삶은 불의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보인 반응처럼 죄를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 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다투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서로 시비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말씀을 떠나 만족을 주지 못할 헛된 것을 따라잡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겼다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에게 만연되었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회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 보며 매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호 4:8)

기도제목 ① 죄된 삶을 버리고 돌이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특히 서두부터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를 책임진 사람들로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우상을 멀리하도록 해야 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주님의 법대로 정의를 세워 나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갈 때 그것을 지적해 주고 의로운 길을 보여주어야 할 자들로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죄는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죄로 마음이 흐려지고 둔해짐으로써, 주님께 범죄했을 때 따라오는 징계에 대한 생각들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며, 그 교만으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5~7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장소와 방법에 따라 희생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불가능함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호 5:5)

기도제목 ① 나의 모든 관심과 일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길 수 있는 시선을 주소서. ②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7~11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까지 깊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을 깊이 인식한 선지자는 간곡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주님과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1~3절). 하지만 백성들은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회개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인애와 주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함이 없었습니다(6절).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 잠시 회개의 열망을 품었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 모습은 인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패역과 행악과 피흘림과 행음이 가득했습니다(7~10절).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되지 못한 종교행위를 통해 스스로 위로받기를 좋아했습니다(6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신을 나타내심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알려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회개가 없을 뿐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은 죄인의 회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기도 제목 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10절). 교만은 죄악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교만히 행하는 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결국 교만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됩니다(호 5:5).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얼굴은 뻔뻔하여 죄악을 범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만이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주님께 불순종함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간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며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요 1:11). 자기 백성은 주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신 7:6; 시 135:4; 렘 2:7; 호 9:3). 이들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교만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만을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두움에 싸여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이 간절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호 7:10)

기도제목 ① 죄악의 근본인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온전한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진리 안에서 행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은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1절). 장로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가이오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실한 섬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5절).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3절). 가이오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에 대해 마음을 다하여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7절). 교회는 이러한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8절).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주의 종들을 섬기지 않았습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신앙의 중심에 자기 으뜸이 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9절). 따라서 그는 진심으로 남을 섬길 수 없었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도 금하였습다.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것은 주의 종들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며 비방하였습니다(10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 보며 선한 것을 본받는(11절)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요삼 1:8)

기도제목 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섬김으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거짓 교사들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도를 잘 안다고 주장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는 교회 안에 속하였으나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4절).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속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이들에 대한 경고를 은혜에서 벗어나 떨어져 나간 자들에 대한 범죄를 예로 들며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하나는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결국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멸하심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5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의 최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6절). 이러한 자들의 결국은 범죄로 인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7절).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때에 자신들만이 볼 수 있는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들에 대해 꿈꾸는 사람들, 즉 몽상가들이라고도 합니다(8절). 그들은 소돔의 사람과 같이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같이 권위를 업신여기며,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영광을 훼방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11절). 성도는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19절)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십자가만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 1:21)

기도제목 ①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요한계시록만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성경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는 인류의 마지막 모습을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기록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주는 위로의 책이며 소망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그 뜻을 정확히 깨닫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혼란과 두려움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의 저자와 저술 장소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9절).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점과 자신이 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2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은 진리의 원천,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놀라운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출 3:14). 본문에서도 알파와 오메가,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속에서 존재하는 자로서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8절). 요한 사도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세세도록 살아계신 분입니다(17~18절).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계 1:8)

기도제목 ① 우리의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회개하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2장 · 찬송가 278장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어쩌면 그들의 신앙을 위협할 이단의 미혹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했습니다. 바울의 예상대로 바울이 떠난 후에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단이 바로 니콜라 당입니다. 이들은 에베소 도시의 풍속을 받아들여서 부도덕과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이 니콜라 당의 영향 때문에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여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4절).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5절). ‘회개하랴’는 말씀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단번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용납하시지 않는 모든 죄에서 단번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회개하는 심령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은총의 첫 관문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감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계 2:19)

기도제목 ① 회개하여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8절).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고난 속에서의 순종이라는 면에서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순종은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문을 여셨기 때문에 복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선교의 명령에 순종한 그들을 향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12절). 그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성도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선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 3:11)

기도제목 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여 보혈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1절). 하늘에 열린 문이란 하늘과 땅 사이를 막고 있는 것들을 제하고 하늘의 보좌를 공개하사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고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 문을 여시며 하늘 보좌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비밀한 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여신 문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그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끝 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계 4:9)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랑을 깨달아 십자가의 은총을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채움 받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 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5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승리를 확실하게 하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집 제사장들이 짐승들의 피로 백성 및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것, 곧 그리스도의 속죄제가 있기까지 일시적으로 행해졌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자신의 피를 드려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드림으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성도들 안에 거하셔서 그 승리를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6절)이신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불러 아뢰며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기 원합니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계 5:5)

기도제목 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일꾼들의 섬김에 십자가의 흔적만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17절). 여섯 단계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순서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정치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종교적 야심을 가진 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두 번째 단계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 번 났다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근과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이때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역사는 끔찍한 사건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역사, 죄악의 역사 속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했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더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막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더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복음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17)

기도제목 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심령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13절). 보좌 앞에 있던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만방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며, 교회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흰 옷 입은 무리는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승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동안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죄악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장로는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된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은 성도들의 행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씻어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대속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를 믿는 인간의 죄악을 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 1:7).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 7:10)

기도제목 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주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신 후에 하늘이 반 시 동안쯤 고요해졌습니다. 그 반 시 동안의 고요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 이외에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일곱 나팔에 의한 심판의 알림이 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상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로 진실한 기도입니다. 확신 있는 기도입니다. 의로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해왔던 기도들이 모두 하나님께 올려졌다고 자신하십니까? 그것들이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되게 드러졌던 기도였습니까? 또한 끝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드러졌던 기도였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불신앙적이고 불의했던 기도들에 대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실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계 8:4)

기도제목 ① 확실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응답을 체험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의 감사로 가득한 제3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두려워할 것 없는 사탄의 권세

요한계시록 9장 · 찬송가 351장

28 월요일

사탄은 성도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쉼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꺾어 죄악의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얼마동안 사탄이 이제까지보다 더욱 극렬하게 날뛰는 것을 예고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 묘사된 사탄이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고, 그 안에 갇혀있던 자신의 수하 세력들을 풀어 사람들을 해하게 하리라고 기록(1~4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사탄의 권세는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고 강력히 대항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권세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탄의 권세를 가벼이 여기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에 사탄의 권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성스런 군사인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바로 알고 그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싸움의 고삐를 늦추지 맙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계 9:1)

기도제목 ①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망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우리는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악한 세력의 권세가 커지며,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고 공의를 시행치 않으시는지 불만과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체하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체하심 없이 즉각적인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우리 중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지체하심이 있었기에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많은 자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공의의 심판이 행해질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하기에 힘써야 하며 주 앞에 헌신하며 전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혹시 회개의 기회, 헌신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남겨둔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지 않고 방치한 한 영혼이 결국은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해 영벌에 처해지고, 지금 내가 미루었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판을 보류하시고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회개하고 헌신하며 전도하길 원합니다.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계 10:6)

기도제목 ①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며 서로 속이고 속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지극히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모든 자들을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측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측량해 보라고 하신 것(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에 따라 측량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정확 무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측량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하거나 합당치 못한 자로 결정되지 않도록 현재의 삶 속에서 매일 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측량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측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열매를 측량해야 합니다. 마지막 측량이 있기 전에 스스로가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측량해 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썩어 없어질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참된 믿음과 의의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측량해보고 회개하며 남은 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영광과 축복을 받을 자로 측량받게 될 것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계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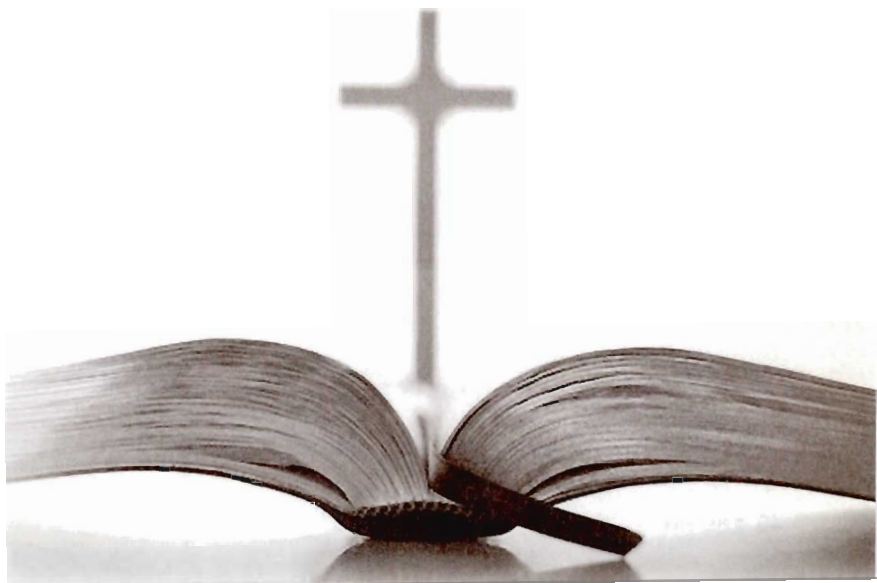
기도제목 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역예배

6월 구역교재 초점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영원의 세계로 바꾸십시오.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만드신 후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매순간 회개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쁨으로! 

6월 4일

데살로니가전서 2:18~19

바울의 기쁨의 면류관 (Paul's Crown of Joy)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6월 11일

출애굽기 5:1~2

바로 (Pharaoh)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

6월 18일

고린도전서 15:51~58

부활의 신비 (Mystery of The Resurrection)

영원한 삶을 위한 부활의 조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6월 25일

출애굽기 4:1~5

하나님의 질문 (God's Question)

주님의 말씀에 지체해서는 안 된다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믿음으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바울의 기쁨의 면류관

| 초점 |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 찬송 |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 산과

| 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2:18~19

⁽¹⁸⁾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¹⁹⁾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가 아니냐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이 인도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바울의 기대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삶의 초점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 나의 소망과 사명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건강과 부에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기대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바꾸어 후에 진정한 기쁨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바울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롬 10:1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분의 대답이라는 것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늘 바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최우선이었습니다.

※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것들이 영혼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울은 배고플 때도 음식보다 한 영혼을 더 원했습니다. 목마를 때도 물보다 한 영혼을 더 찾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유보다 한 영혼을 더 갈망했습니다. 판결을 받았을 때조차도 그는 정의보다 한 영혼을 더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 9:36~38

눅 19:10

영혼들을 향한 집중력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에 집중했습니다.

※ 고린도전서 9:19~22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나 직장 혹은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할 때 맞대응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 각각의 상황마다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심지어 매를 맞을 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 다음의 질문에 각각 대답해 보십시오.

- 나의 행동은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가?
- 영혼구원에 대한 나의 관심은 어떠한가?
-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는가?
-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눅 15:7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_____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중요하다

바울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긴급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후 6:2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며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고 강조합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은 힘겹지만 우리에게 아직 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영혼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고린도후서 6:4~10 말씀을 묵상한 뒤 느낀점을 나누어 보십시오.

바울은 매일 모든 상황을 추수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맞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한 권고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 복음전도자로서 지금 바뀌어야 할 나의 모습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딤후 4:2 /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한 삶이었지만 바울의 삶은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그의 모든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그의 초점은 영혼구원이라는 사명에 온 힘을 쏟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살전 2:18~19 /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시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이나 이나 자랑의 이 무엇이나 그가 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막 16:15

모든 신자들이 바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의 생애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율법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무나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태도, 기쁨, 면류관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과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바 로

| 초점 |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 본문 | 출애굽기 5:1~2

①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②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들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 곧 출애굽입니다.

창 15:13~14

※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던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출 5:1

모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다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던 자였습니다.

출 5:2 _____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바로는 수세기에 걸쳐서 인류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말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계획에 반항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행 16:31 _____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하며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그분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삼상 15:22 _____

요 6:40 _____

하나님의 종을 방해하다

바로는 하나님의 종을 방해했던 자였습니다.

출 5:2 /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_____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창조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 8:19 _____

요 14:1 _____

※ 창세기 1:1, 요한복음 3:16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서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섰던 자였습니다.

출 5:2 /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_____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노역을 더 무겁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출 5:7~9 _____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은 나중에 그 일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고후 5:10 /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로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바로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바로는 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였으며 하나님의 종과 백성의 길을 막았습니다. 결국 바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출 12:29

출 14:28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언제나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순종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종과 백성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부활의 신비

| 초점 |

영원한 삶을 위한 부활의 조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 찬송 |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 본문 | 고린도전서 15:51~58

⁵¹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⁵²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 ⁵⁷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⁵⁸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신약 성경은 죄, 하나님의 거룩하심, 믿음에 의한 구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 등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것들에 대해 밝히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밝혀진 일련의 신비 속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엡 1:7~10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엡 1:4 / 곧 창세 전에 _____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부활의 신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어납니다.

고전 15:51

많은 신자들이 주께서 오시기 전에 자신이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살전 4:13

살전 4:17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은 불가피합니다(히 9:2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황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변화됩니다.

※ 고린도전서 15:51~57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요, 썩어질 존재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의 황홀한 여행을 위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모든 타락과 부패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에는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 부활 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요일 3:2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도 그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흥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축복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은총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신비에 대해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고전 15:58 /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_____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견고한 소망은 현재의 사역에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부활의 은총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는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 복음을 위해 지금 내가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모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선포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일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마 6:20 _____

부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혹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아십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엡 5:16~17

골 1:29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 가족,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존재로 변화될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위한 부활의 조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 믿음의 기도 |

1.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수님만 바라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질문

| 초점 |

주님의 말씀에 지체해서는 안 된다

| 찬송 |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본문 | 출애굽기 4:1~5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셨고 자신의 백성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 3:5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십 년 전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자신의 목숨을 찾았을 때 그는 도망치듯 애굽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방 땅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외로운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범죄했던 곳, 자신의 동포들마저 그를 거부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 애굽에서 모세가 경험한 참담한 실패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많은 이유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출 4:1).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을 위해 그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 위암묵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단순한 질문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출 4:2 /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_____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모세의 관심을 돌리시고, 오늘
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
문을 던짐으로 모세의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출 4:3~5 _____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문제에
골몰합니다. 그들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약속 안에
서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 6:34 _____

독특한 질문

하나님의 질문은 독특했습니다.

출 4:2 /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은 이미 대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양을 칠 때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 다음의 질문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 일하신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 성령님은?
출 14:16 출 17:5~6	요 6:9 요 6:13	

벧전 5:7

구세주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구세주의 질문입니다.

출 4:2

예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왕상 17:8~16).

※ 주님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출 4:20).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했으며 독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질문은 구세주의 질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계 2:21 _____

롬 12:1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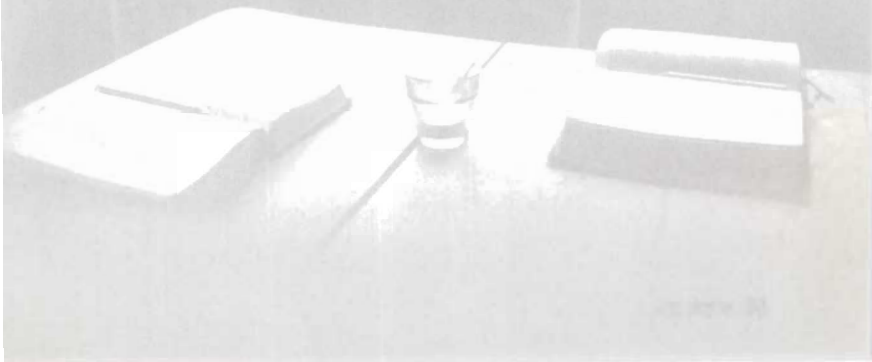
지금 나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2.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비

-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
-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51~58)

신약 성경은 죄, 하나님의 거룩하심, 믿음에 의한 구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 등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것들에 대해 밝히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밝혀진 일련의 신비 속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7~10).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부활의 신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잠 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고전 15:51). 많은 신자들이 주께서 오시기 전에 자신이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살전 4:13).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의 재림 전에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 공중에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한 의사와 과학자, 환자들은 끊임없이 죽음과 사투를 벌일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를 돌보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사망률과 출생률에 대해 연구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황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기대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1~57). 지금의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요 썩어질 존재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의 황홀한 여행을 위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모든 타락과 부패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에는 진정한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도 그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에 대해 흥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축복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신비에 대해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에 더욱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8).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견고한 소망은 현재의 사역에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부활의 축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는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모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선포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일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천국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혹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 가족,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바로잡아야 할 슬프고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존재로 변화될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에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0년 6월

Copyright© 2010 Choonghyun Church

편집인 | 김성관

편집위원 | 진홍용

편집위원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